



도심 속 문화예술공간, 유중아트센터

글. 최유진 편집원장 사진 한해정 기자, 유중아트센터 - 전강욱 제공

도심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는 어디까지일까. 일반적으로 연극이나 뮤지컬, 음악 공연, 미술 전시 등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속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 일명 '문화생활'을 즐긴다. 제법 문화적인 생활에 익숙해진 대중들에게 복합문화공간은 친근한 곳이 되었고, 이제 그들은 좀 더 특별한 것을 찾는다. 특별한 공연, 특별한 전시, 특별한 공간. 도시 한 가운데 자리한 유중아트센터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반응하는 곳이다.

유중재단이 마련한 예술의 공간, 유중아트센터는 음악과 예술, 휴식이 공존하는 곳이다. 좀 더 가까이에서, 좀 더 편안하게 예술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곳은 카페부터 갤러리, 콘서트홀, 작가들의 스튜디오와 연습실 등이 마련되어 있는 문화예술전문기관이자 복합문화공간이다.



2

1, 2 1월 12일까지 유중갤러리에서 열린 전강욱 개인전 (종작-기울어진 풍경) 전경
3, 4 유중아트센터 1층에 위치한 카페 드 유중. 삼림욕 카페인 이곳에서는 월 프로젝트를 통해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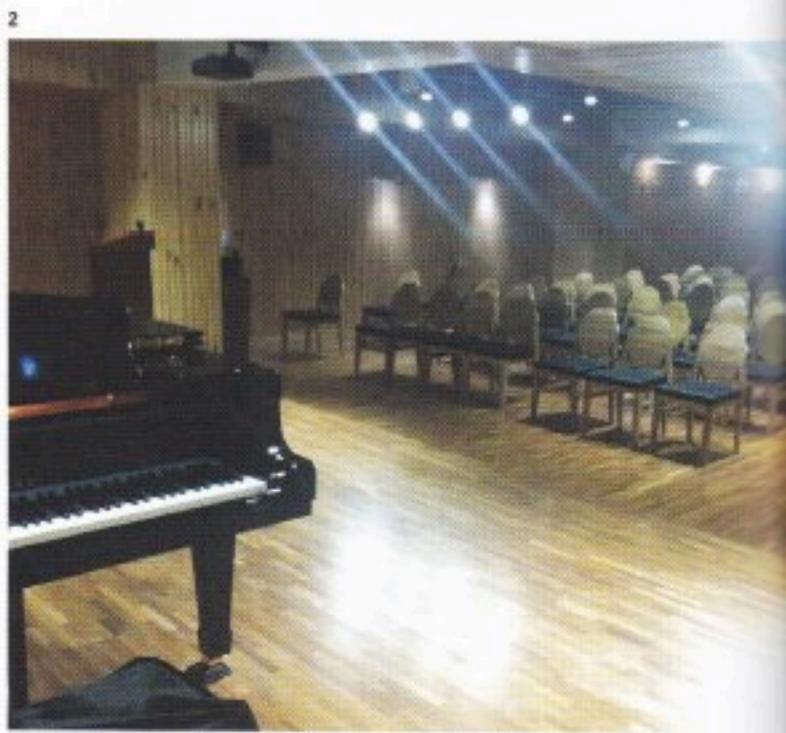
유중아트센터 건물 1층에 마련된 카페 드 유중은 사진이나 회화 등의 작품과 차,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이다. 차를 판매하는 하는 것은 물론 공간의 벽면을 활용한 월 프로젝트(wall project)를 통해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곳은 '삼림욕 카페'로 자연적 콘셉트를 선보이고 있다. 스트레스 완화와 면역기능 증대에 좋다고 알려진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100% 순수정유를 액상기화장지를 통해 분사, 공간 전체에서 삼림욕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꾸민 이곳은 기네스에도 등재된 특별한 장소이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차와 스낵도 카페의 자랑거리다. 아트센터가 마련하는 일반적인 휴식공간겸용 카페와 달리 전문적이면서도 특별한 가능으로 이미 주목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열리는 월 프로젝트 전시는 유중갤러리의 기획으로 이루어지며 2월에는 김차영 작가의 전시 <Exit Play>가 3월 5일까지 열린다.



4

2층은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공간이다. 클래식 연주가 가능한 유중아트홀과 연습이 가능한 8개의 뮤직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다. 각각 120여 평, 80여 평으로 기획연주, 유중 영플레이어즈 콘서트, 유망연주자 초청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리며 음악가 및 단체를 위한 연습공간 대여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3층은 미술의 공간이다. 약 70여 평에 마련된 두 개의 전시장에서는 유중갤러리의 자체기획전과 신진큐레이터 전시기획 공모, 중진, 원로작가 기획초대전, 다원 예술프로젝트 등 다양한 전시가 열린다. 130여 평의 공간에 마련된 창작스튜디오는 작가들의 작업공간으로 총 6인의 아티스트들이 8개의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펼치고 있다. 입주작가로 선정되면 1년간 스튜디오를 제공받고 2회의 그룹전 및 오픈 스튜디오, 평론기 초청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1기 입주작가는 김은영, 김지혜, 노신경, 박상희, 이경하, 최성훈이며 2기 입주작가 모집은 오는 10월경 이루어진다.



유중갤러리가 지난달 선보인 전시는 전강옥 작가의 개인전 〈중력-기울어진 풍경〉으로 지난달 12일까지 개최됐다. 원광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랜드 에꼴 테보자르와 파리 판테옹 소르본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전강옥 작가는 서울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조각이라는 형식을 통해 매체의 양감과 물성 등을 표현해오고 있다. 그는 조각의 핵심적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중력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중력이 사물에 작용하는 극적인 순간을 작품을 통해 가시화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울어지거나 비스듬하게 서있는 작품들을 통해 안정적인 느낌보다는 아슬아슬한 느낌을 선사했다. 빠딱하고 불안정한 사선이 지닌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전시는 〈빠딱하게 서 있기〉, 〈무게의 논리〉, 〈며 있는 큐브, 멈추어진 시간〉 등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불안정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통해 중심을 잡고 서있는 그의 작품들은 제목이 암시하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사고를 열어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자세를 제시해주었다. 국립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프랑스 아뜰리에 테 자르슈, 광주 대인예술시장 등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작가였으며 현재 장흥조각아카데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유중갤러리에서의 전시를 통해 도시 생활 속에서 좀 더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자 하는 대중들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3

지(智) · 데(德) · 체(體) 삼위일체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어리석음을 넘어 현명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유중재단은 이밖에도 전반적인 문화사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예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미술과 음악 분야에서 매년 각 덕목에 맞는 후보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유중재단은 개발도상국 유학생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 지급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예술가를 지원하고 예술가와 대중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유중아트센터가 하고자 하는 일은 간략하게 정리된다. 생활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 일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유중아트센터는 올해 음악과 미술을 결합시킨 다장르 결합 프로그램, 실기강좌 프로그램인 토요 아뜰리에, 브런치와 연주, 전시 감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Art & Brunch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계획이며 악기페어와 미술작가 프로모션 및 아트페어, 문화예술 이카데미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M

1 전경숙, 〈무계의 논리 II〉 철, 측, 케이블선 100×150×140cm 2009

2 2층에 마련된 유중아트홀

3 3층에 마련된 창작스튜디오, 박상희 작가의 작업실

3 전경숙, 〈기울어진 사물〉 오브제, 우레탄 도색 가변설치 2011

4

